

## 경인일보

2019년 08월 26일 (월)

종합 03면

### “DMZ에 관광형 도로 건설” 경기연, 보고서 통해 제안

#### ‘급은 흙길’ 조성 필요성 덧붙여

DMZ에 생태계를 보호하는 형태의 경관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DMZ 도로는 급은 흙길로’ 보고서를 통해 DMZ 도로를 속도 중심의 통과형이 아닌 명소를 구경할 수 있는 관광형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급은 흙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도로 면적보다는 개수를 제한하고, 교통량에 따라 완충구역의 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습지 등 주요 생태계는 우회하거나 저속 구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선이 결정되면 생태통로를 계획하고, 도로 운영 시 양쪽 경관을 복원하자고 했다. /신시영기자 sjy@kyeongin.com

## “평화로·통일로 관광 명소화 세계적 경관도로 탈바꿈 절실”

한반도 평화의 물결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도로·철도 건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평화로(국도 3호선)·통일로(국도 1호선)를 세계적인 경관 도로로 구축, DMZ 도로 자체를 관광 명소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DMZ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과감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MZ 도로는 굵은 흙길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하려면 DMZ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철도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동서 방향의 DMZ 생태 벨트와 교차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남쪽 구역에서만 동식물 5천929종이 출현하고 멸종위기종 101종이 서식하는 DMZ 내 생태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에 연구원은 DMZ 생태계를 배려한 도로 건설 대안으로 방지하·방지

상 개념 설계, 도로 폭보다 노선 수 제한, 교통량이 따라 완충구역 폭 확대, 생물 종이 많고 민감한 습지 생태계는 우회 또는 저속 설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 차원에서 한반도의 허리가 될 평화로를 선택, 세계적인 경관 도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도, 고양시, 파주시가 통일로에 대한 경관 개선에 협력해 향후 복으로 확산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지난달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DMZ와 남북 접경지역 활용 때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로 "경제적 가치"(17.5%)보다 "환경적 가치"(81.9%)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생태계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도시가 아닌 도로 건설"이라며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연 'DMZ 도로' 보고서 생태계 고려 친환경로 제안

이와 관련, 연구원은 지난달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여승규기자

## “DMZ도로 구불구불한 흙길로 조성”

###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비무장 지대 생태계 배려 도로 건설 기본원칙 제시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DMZ 주변이나 향후 DMZ를 관통해 건설하게 될 도로는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굽은 흙길’ 형태로 건설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와 DMZ 보호, 생태계 보호를 원칙으로 DMZ 도로 비전 등을 담은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하려면 DMZ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동서 방향의 DMZ 생태벨트와 교차 충돌할 가능성이 커 자칫하면 DMZ 생태계의 허리를 자를 수 있다.

남쪽 구역에서만 동식물 5천 929종이 출현하고 멸종위기종 101종이 서식하는 DMZ가 도로로 단절돼 생태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MZ 생태계를 배려한 도로 건설 기본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도로 건설 기본원칙은 ▲도로 면적보다 개수 제한 ▲교통량에 따라 완충구역 폭 설정 ▲습지 등 주요 생태계 우회 또는 지속 설계 ▲

노선 결정 후 생태통로 계획 ▲도로 운영 시 양쪽 경관 복원 등이다.

특히 일부는 구불구불한 흙길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동물이동용으로만 좁게 해석했던 생태통로도 선형(하천·다리·터널·굴), 징검다리(공원녹지·습지·연못·정원·도시숲), 경관(가로수·제방) 등 3가지 유형을 적용해 DMZ를 생태통로 바람직한 장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DMZ와 남북 접경지역 활용 때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로 ‘경제적 가

치’(17.5%)보다 ‘환경적 가치’(81.9%)를 선택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아마존 산림 파괴나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의 사례에서 보듯 DMZ 생태계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도시가 아닌 도로 건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하더라도 아름다운 구간, 멋진 다리 등으로 도로 자체가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허리가 될 평화로(국도 3호선)를 선택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만들고 통일로(국도 1호선)는 국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가 협력해 경관을 개선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주형기자 peter523@

## 미래지향적 DMZ 도로 생태중심 건설

경기연구원이 비무장지대(DMZ) 주변 도로와 개설 예정인 관동도로를 생태 중심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 25일 발표한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라는 보고서에서다.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연에 닮은 도로'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 7월 수도권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DMZ와 남북 전경지역을 활용할 때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17.5%)보다 '환경적 가치'(81.9%)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기존 '속도 중심'에서 DMZ 주변은 '생태 보전'이라는 도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이에 따라 경기원은 DMZ 주변 도로 자체를 명소화시켜, '머물며 구경하는 관광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굽은 흙길'같은 획기적인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DMZ 도로=생태 도로'라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되는 출발점이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신(新)경제'와 'DMZ 생태계 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한 DMZ 도로 비전 등이 담겨있다. 신경제 정책은 DMZ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남북 관통 정책은 동서로 펼쳐진 DMZ 생태보전이라는 명제와 교차 중

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신경제가 DMZ 생태계의 허리를 잘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는 도로건설 기본원칙 5가지를 제시한다. △도로 노선 숫자 제한 △교통량 추이에 따른 완충구역 폭 설정 △습지 등 주요 생태계 우회나 저속 설계 △노선 결정 후 생태통로 계획 △도로 운영할 때 양쪽 경관 복원 등이다. 도로의 수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이 늘면 완충구역도 확대하고, 습지 등 민감한 생태계는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저속 도로(濶路)로 설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구불구불한 흙길 조성이 필요하다는 과감한 제안도 한다. 여기에 생태통로 개념을 확대해 선형(線形), 징검다리, 경관 등을 포함하면 'DMZ 생태통로 백람회 개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연구원의 'DMZ와 생태계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도시가 아닌 도로 건설'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또 굽은 흙길 등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설계하자는 다소 기발한 제안도 환영한다. DMZ가 연구원 주장대로 기발한 노선과 아름다운 구간, 멋진 다리 등 도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미래지향적 제안, 적극 환영한다.